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를 바라보면 마귀의 영이 들어온다

24시간 늘 하나님만 생각해야

마귀한테 오염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긴 상태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이 몸도 하나님의 몸이요,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눈도 하나님의 눈이요, 입도 하나님의 입이고로 항상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주장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건 바로 죽을죄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생각하는지 하는 게 전부 죽을죄야. 아시겠어요? 24시간 늘 하나님만 생각이 되는 상태의 사람으로 변하면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갖는 생활을 노력을 하면 그게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관에 영모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이올시다. 영모님 말씀하기를 "마귀 신이 들린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 마귀신 들린 사람 쳐다보면 마귀한테 오염된다." 해 놓고 옛날 김풍자를 만난 사람도 오염됐다고 전부 안찰해서 버섯준다고 막 배가 아파 필멸 뛰고 한 적이 있었죠? 마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마귀한테 씌운 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신한테 씌우겠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 봐야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전도관 식구들이 있었지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준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전도관 때에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예수 사진을 버리고 영모님 사진을 방 안에다 걸어놓고 영모님 사진을 바라보고 영모님만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부인회 연합 회장으로 있는 김옥자 권사가 옛날 전도관 다닐 때에 이 사람이 그 당시부터 가르쳐줬어요. "영모님 사진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바로 은혜가 연결되고 그리하면 바로 응답의 기도가 나간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줬던 것이올시다. 이 사람이 완전히 터득을 하고 완전히 깨달은고로 가르쳐준 거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돼. 아시겠어요? 자주 만나야 돼 그냥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자주 만날 수가 없으므로 사진을 수첩에다 넣고 다니면서 늘 수첩을 펴고 봤다고 그랬죠? 세상일을 하느라 멀리 갈 수 있고 그대로 바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그 사진을 펴보고 또 펴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오는 거죠? 은혜 받는 비결이야. 그게. 아시겠어요? 죽는 비결은 죽은 사람 생각하면 죽는 거야. 죽고 싶은 사람 독약 먹을 거 없어.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죽은 사람만 자주 생각하면 쉽게 죽어. 아시겠어요?



구세주 조희성님

죽은 사람은 생각하지 말아야

죽고 싶은 사람 한 번 손 들어 봐? 한 명도 없네.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절대로 죽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생각해 봐야 죽은 사람 살지도 않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 불쌍해서 뭐 생각을 한다. 불쌍해서 생각한다고 살아야? 안 살아야?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승리제단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가끔 나오는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가끔 나오는 사람 상종하지 마야. 가끔 나오는 사람은 마귀새끼야. 아시겠어요? 왜 자주 빠지면 마귀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제단 나오다가 가끔 나오는 사람은 마귀한테 씌운 사람이요, 마귀 종자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슬 은혜가 내리는고로 예배 한 번만 보면 몸이 가벼워져, 안 가벼워져? 이걸 못 느끼는 건 마귀종자야. 예

배 한 번만 보면 벌써 몸이 가볍고 예배를 자주 보면 은혜가 연결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참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은혜 연결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무슨 병도 있고 어떤 여자하고 동거 생활도 하고 있고 그런 말 한다고 은혜 연결되는 사람이 그 소릴 듣고 인정이 될까? 그 말한다고 해서 인정이 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비방한다고 여기 들을 사람 있어?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말만 해봐야 자기 입만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자기 입만 더러워져, 왜 그러냐면 바로 그대로 은혜만 내리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학문을 배우죠?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영생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인류역사가 흐르면서 오늘날 감추었던 진리의 말씀, 그대로 감추었던 만사를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무슨 모함 모략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릴 사람 있어? 흔들릴 사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고도 마귀는 어리석죠? 마귀가 어리석고 마귀가 미련한 고로 마귀는 이러쿵 저러쿵하면 넘어갈 줄 알지만 이 승리제단 식구들은 전부 승리자나 여기 나오는 거야, 실패자가 나오는 거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나오므로 마귀의 어떠한 모함의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있어?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없죠?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도 그대로 분명히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이 길은 마음먹는 대로 이 길을 가는 길이고로 영생의 길을 가려면 바로 영생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잠시 가져야 돼? 항상 가져야죠?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면서 늘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간의 생각을 돌려가면서 아주 잘난 체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마귀새끼가 돼서, 아시겠어요?

나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됐다 되고 그대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면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고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면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그대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믿음을 가졌다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가 되면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늘나라가 완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하면서 하늘나라가 바로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하늘나라요, 천국이 되지만 마귀와 죄인에게는 바로 지옥이 된다는 것을 논했죠?*

1992년 9월 9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5) 유다의 비행(奉行) - 2

(지난호에 이어서)
그 당시에 과부가 어린아이를 배면 동네 사람들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꽤 많은 다말은 자신이 요구한 물건을 건네받은 연후에야 유다와 동침하였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다말이 어린아이를 배어 배가 똥똥하게 불러오니까 다말의 사람들이 유다 시아버지한테 고소를 하였습니다. "댁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 짓을 하다가 임신한 것 같으니 어서 처벌 하시오!"
고소를 받은 그 유다는 화가 나가지고 당장 며느리 다말을 호출하였습니다.
"빨리 오라고 해! 그 말할 년이 어떤 개새끼하고 불렀는지! 빨리 오라고 해!"
그 개새끼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 줄을 모르고 고래고래 고향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오라는 명령을 받은 다말은 병크 그 앞으로 갔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그냥 당장 죽일 듯이 쾅쳐하였습니다.
"그 배가 똥똥한데 그 어린아이가 누구 어린아이야?"
다말은 웃음이 막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해 가지고 간 증표 즉 시아버지의 도장과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의 어린아이올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어린아이를 뵈고,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산동이와 후동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아이에게 매어 줄 붉은 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자다"하고 붉은 실을 그 손목에 매었습니다.
그런데 기괴망측하게도 밖으로 내밀었던 산동이의 손이 산모의 자궁속으로 속 들어가더니 아수가 되는 후동이 가 나왔던 것입니다. 산파는 소스라치면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파의 외마디가 후동이의 이름이 되었는데 바로 '베레스'는 '터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베레스의 형이 되는 아이가 손목에 붉은 실이 매여 있는 체로 나

《3장 아굽의 하나님》

(15) 유다의 비행(奉行)

왔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28절: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29절: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수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30절: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과정에서 앞날에 있을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베레스의 후손에서 장차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인데, 베레스의 이름 그대로 그 거짓 선지자는 세상을 폭죽 터뜨리듯 파괴할 것이라는 마귀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먼저 온다는 암시도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하

는 과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선동이보다 먼저 어머니 태반을 찢고 나온 후동이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참선지자는 아담 이후 6천년 만에 오시게 되어 있는데,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아담 이후 4천년 만에 온 자로 참선지자보다 2천년이나 먼저 왔기 때문에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1 다윗(예수의 28대 조부 다윗)의 10대 조부 유다의 핏줄: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이새와 다윗 그리고 예수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이사야 48장 1절). '이새'가 누구인가? 이새는 다윗의 아버이다. 그럼 아래와 같이 다윗의 가계도를 들춰보면 그 줄기에서 구세주가 나올 수 없는 핏줄인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다윗의 10대 조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간음하여 자식 베레스를 낳았고 그 후손 살몬이 여러고의 창녀 라합과 붙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과부 룯(이방인 모압 여자)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사생아 3명의 이름에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으니, 베레스는 '찢어짐', 보아스는 '약삭빠름', 오벳은 '상놈 또는 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어찌 연인들의 불륜 내용을 그대로



"나는 이 물건 입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 창38:25 "Judah and Tamar" (유다와 다말) 17세기 작품, 작가 미상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udah_und_Tamar_17.jpg

로 자신의 이름에다가 꼭 맞게 표현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성경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에 사생자(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암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대대손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의 조상은 입에 담을 수 없는 3번 이상 사생아의 핏줄을 타고 나왔으니, 오늘날 이새의 부리 즉 다윗의 계통에서 구세주가 도래한다는 성경해석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며 고쳐야 한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는 일종의 천기(天機)에 가까운 구절로써 예수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고착화된 이념을 혼순간에 뒤집어엎는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다.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구세주)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출현할 것이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도적이며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젤라

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직접 인류구원의 그리스도(구세주)로 오신다(이사야 43장 11절 참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구절(눅20:41-44)은 "다윗의 후손인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오해를 했다."라고 예수 스스로 이실직고한 말이다. 이 구절은 말세 때에 진짜 구세주가 풀어주게 되어 있지, 구세주 아닌 마귀의 사람(죄인)들이 아무리 해석해보려고 했지만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 없었던 것이다.